

소중한 인연

이 경 옥 (세브란스호스피스 팀장)

사람이 살다보면 여러 번 생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있게 마련이고 그럴 때마다 많은 망설임과 또 잘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게 된다.

나와 호스피스와의 인연은 전혀 예견하지 못한 새로운 만남이었고 나의 삶의 많은 영향을 주었다. 처음 시작은 다른 분의 권유로 시작하였으며 그때 생각으로는 이렇게 오래 동안 하리라 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벌써 10년이 되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별로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은 중압감으로 괴로울 때도 있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과의 특별한 만남이 커다란 기쁨이다.

호스피스란 말 자체가 주는 이미지는 임종과 관련이 되어 있어 다분히 부정적인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래서 환자나 가족에게 우리의 방문이 때로는 환영받을 만한 일이 못되기도 한다. 이렇게 친밀하지도 않고 때로는 두려움을 주는 호스피스이지만 말기환자와 가족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것은 10년이란 시간을 이들과 함께 하면서 느끼고 공감한 결과이다.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게 되는 신체적인 고통, 외로움, 상처받은 자존감, 경제적인 어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상실의 슬픔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들의 아픔을 가까이에서 듣고 보아서 느끼고는 있지만 과연 이들이 받은 고통을 누가 감히 짐작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쉽게 말할 때가 있다. 너의 아픔을 안다고, 이해한다고

아니다. 어떻게 그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한다고 감히 말 할 수 있을까?

10년이란 길다 먼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호스피스 대상자를 만나 이제부터는 당신이 호스피스 대상자로 호스피스 팀에서 이러이러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적은 것 같아 무력감마저 들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참으로 민망하여 할 말을 잊기도 한다.

아마도 그것은 한 인간이 감내하기에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보살핌이 절대로 필요로 할 때 호스피스 팀이 이들과 함께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삶의 끝자락에서 고통 받은 이들을 호스피스 전문가 팀의 정기적인 돌봄을 통해 통증완화 및 증상조절로 신체적인 평안을 갖게 되고, 심리적 지지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찾게 되면 차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드리고 가족은 사랑하는 이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이별을 준비하게 된다.

호스피스 팀은 환자와 가족이 이런 모습에 가까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돌봄을 제공하게 되며 이일을 택한 보람을 찾게 된다.

지난 10년간 내가 몸담았던 세브란스 호스피스와 그 외 호스피스 종사자들과의 만남이 소중한 귀한 인연으로 간직되어지기를 소망한다.